



# 2018 가을학기 칭화대학교 한인연구생 학술제

2018 Tsinghua University Korean Graduate Students Forum

2018 가을학기를 맞아 <제7회 칭화대학교 한인연구생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본 학술제는 인문, 사회, 예술, 이·공계 등 여러 분야의 연구 내용을 논하고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교내 한인연구생 및 교수진 뿐만 아니라, 북경 내 대학 연구생들과 각 계에 계신 교육 및 연구자, 실무자 분들 또한 초대하여 한층 더 발전된 학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10. 27

칭화대학교 한인연구생 학생회

- **장소:** 칭화대학교 교내 대강의실 (三教)
- **일정:** 11월 24일 토요일, 13:00 – 17:45

13:00 – 13:15	등록
13:15 – 13:30	개회사
13:30 – 14:15	세션1. 중국언론은 어떻게 한국과 소통하는가
14:15 – 15:00	세션2. 창조적 회복력을 갖춘 도시
15:00 – 15:15	다과 및 휴식
15:15 – 16:00	세션3. 생활 속 상표법
16:00 – 16:45	세션4.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UI디자인
16:45 – 17:30	세션5. 착용가능한 로봇
17:30 – 17:45	총평 및 폐회사
17:45 –	만찬 및 교류회

■ 세션구성:

<b>Session 1. 중국언론은 어떻게 한국과 소통하는가</b>		
<b>발표자:</b>	김채영 (칭화대 국제관계 석사)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소프트파워를 중시하게 된 중국은 언론을 부단히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영 언론의 한국어판을 만들어 보도하는 유일한 국가다. 대표적인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와 CCTV의 한국 내 보도 활동이 시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중국의 목소리를 흡수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중국 언론은 과연 한국과 어떻게 소통하고자 할까? 그 소통의 효과는 어떠한가?
<b>토론자:</b>	刘金鹏 (欧美同学会朝韩分会副秘书长) 김경애 (북경대 응용언어학 박사) 이해진 (칭화대 GBJ 석사)	
<b>Session 2. 창조적 회복력을 갖춘 도시</b>		
<b>발표자:</b>	김창경 (칭화대 도시계획 박사)	현대 도시는 기후변화, 지진, 테러, 지역쇠퇴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는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성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Resilient City'는 지속적으로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와 혼란에서 벗어나 주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하고 회복력을 갖춘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 도시가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해 창조적 회복력을 갖춘 수 있는 도시의 기본 요건을 모색하고자 한다.
<b>토론자:</b>	권대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관) 魏寒宾 (清华大学城乡规划 博士后) 백윤지 (칭화대 도시계획 박사)	
<b>Session 3. 생활 속 상표법</b>		
<b>발표자:</b>	윤건준 (칭화대 법학 석사)	우리는 법이란 딱딱하고 난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적재산권법과 같이 특수한 분야의 법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 중 하나인 상표법은 예상 외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많은 접점을 가진다. 당연한 이야기이나 상표법은 상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법'이라는 단어를 떼고 바라보면 주변에 늘 보이는 그 '상표'다. 본 학술제를 통해 이처럼 친근한 상표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법'과 함께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b>토론자:</b>	이종기 (중국중과특허법인 변리사) 구효영 (정법대 법학 박사)	
<b>Session 4.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UI디자인</b>		
<b>발표자:</b>	김마리나 (칭화대 시각디자인 석사)	여러 국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이민자, 사업가 등은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과 교류 또는 협업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메신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개의 메신저를 사용할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주고, 다양한 나라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하도록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그러한 모바일 메신저 UI제작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b>토론자:</b>	고민정 (칭화대 산업공학 석사)	
<b>Session 5. 착용가능한 로봇</b>		
<b>발표자:</b>	박현준 (칭화대 기계공학 석사)	외골격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인체의 근력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기계적 구조가 착용자 외부에 결합되는 형태를 가지며 착용자의 운동 의도를 파악하여 근력을 보조 혹은 증강시켜준다. 그러나 인체보행을 조력할 때, 큰 질량을 갖는 기계적 구조로 인해 외골격 로봇은 큰 관성을 가진다. 이는 로봇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착용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외골격 로봇과 인체 관절간의 오차는 작업능률의 저하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Exosuit'는 직물로 이뤄진 슈트로 최소한의 구동장치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인체관절 조력이 가능하며, 이는 'Wearable Robot'의 범용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b>토론자:</b>	이승일 (칭화대 AI자동화공학 박사) 이유진 (칭화대 스왈츠만 공공정책 석사) 국승호 (칭화대 전자공학 석사)	

※ 상기 구성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